

설 명 자 료

2019년 7월 17일 즉시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작성팀 : 식품의약과

담당자 : 황인욱 주무관

연락처 : 055-211-5025

제목 : “못 믿을 커피전문점 얼음 ‘과망간산 칼륨’ 기준치 초과” 기사
관련 설명자료

(경남신문 7.16일자 보도)

◇ 7월 16일 경남신문, <못 믿을 커피전문점 얼음 ‘과망간산 칼륨’ 기준치 초과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1. 기사 내용

-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·검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과 진주 지역 커피전문점 3곳의 얼음에서 ‘과망간산칼륨’이 기준치 (10mg/L 이하)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됨.
- 과망간산칼륨 수치를 구체적으로 보면 창원 A커피점은 17.9 mg/L, 진주 B커피점은 14.1mg/L, 진주 C커피점은 27.9mg/L이 검출됨.
- 과망간산칼륨은 흡입, 섭취, 피부 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되고 폐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임.

2. 사실 확인

- 식품공전에 따른 식용얼음의 검사항목은 염소이온, 질산성질소, 암모니아성질소, 과망간산칼륨 소비량, pH, 세균수, 대장균군이며, 기사에서 다룬 ‘과망간산칼륨 기준치’는 ‘과망간산칼륨 소비량’으로 하는 것이 옳은 표현임.
-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이나 식용얼음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 및 산화되기 쉬운 무기물과 반응한 과망간산칼륨의 양으로서, 이는 수질판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작용함.

- 따라서, 과망간산칼륨(KMnO₄)은 수거·검사한 식용얼음에 직접 함유되어 있는 물질이 아니고, 식용얼음의 오염정도를 확인하는 분석실험에 사용된 시약임.

3.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

- 경남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3곳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, 포장·판매되는 식용 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함.
- 이후 해당 업소들의 제빙기를 세척·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을 재검사하여 현재는 3곳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함.
- 경남도는 안전한 식재료 취급과 영업자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,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, 식품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 수거·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.